

결국 1883년에는 미친 사람으로 불리며 싸움을 일삼는 망나니가 되었다. 이런 아버지를 스탈린은 두려워하며 피했고, 이에 분노한 아버지는 스탈린을 이 잡듯이 패고, 트집 잡으며 사생아라 욕했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로였는데, 언젠가는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탈린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경찰을 데리고 오거나, 칼을 던져 막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겨우 스탈린이 만 4살 때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그의 아버지 베사리온의 알코올 중독은 더 악화되어 갔다.. 이때문에 사망했을때의 사인이 간경화였다. (일설에서는 엄청나게 취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난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 죽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스탈린의 아버지 베사리온 주가시빌리는 나중에는 벨트를 팔아 술을 사먹는 지경으로 전락해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것이.. 그루지야가 속한 캅카스 지역에서는 벨트를 판다는 것은 인생 막장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곳 저곳 떠돌며 살아야 했다. 그리고 옆친데 덩칠격으로 이즘에 스탈린은 마차에 치여 왼팔을 다쳤고, 평생 왼팔이 불편한 장애로 남는다.

1884년 스탈린의 아버지인 베사리온은 스탈린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아내 케테반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화 기술을 가르쳤으나 이로 인해 스탈린은 천연두에 걸려 얼굴에 곰보가 생긴다.

이 얼굴에 생긴 곰보흉터는 그의 삶에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 생각된다. 베사리온은 스탈린이 낮자마자 바로 집을 나가버리고는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때문에 케테반은 재봉사일을 하며 여러 지인